



안성순 도로및공항기술사회 회장

도로 및 공항은 국가 인프라의 중요 시설로서,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은 도로 및 공항 기술사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 안성순 회장을 만나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의 역량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 일 시 : 2009년 4월 13일 14:00
- 장 소 : 평화엔지니어링 연구원장실
- 참석자 : 안성순 회장,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홍보위원장, 구수연 사원

■ 먼저 도로 및 공항 기술사들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국가의 경제성장에 필수 조건인 도로와 공항의 계획, 설계, 감리를 통하여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선봉이 되어 사업 책임 기술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 주요연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로 및 공항기술사는 1964년 제 1회 기술사 2명이 배출된 이래 2009년 현재 895명이 배출되는 거대조직

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배출되는 인원 중 본회 가입인원이 705명으로 80% 가까운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의 원천은 1990년 초대 이창림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10대 회장으로서,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본 회의 목적은 정관에서 명시한 것처럼 기술사 업무

수행능력을 증대하고 정보 교환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연간 주요활동은 연초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와 엔지니어링 도로 설계 분야 정책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 과제 및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또한, 회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CPD 교육, 기술발표회, 기술논문집 발간, 회지발간, 국내·외 현장 견학, 경조사 관리, 도로기술발전을 위한 R&D 참여, 도로분야 관련 프로젝트 평가·심의·제안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를 이끌어나가기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본회는 기관조직이 아니고 각 회원 및 회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의견집약에 애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발표회, 국내·외 현장견학 등을 통해 회원 간의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도로분야 일거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과 토론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어

려운 점은 친목 봉사단체로서 순수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되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로 지출은 크고 수입은 적어 회원 소속사의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요.

■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70년대와 80년대 초중반까지 차관사업을 통해 도로 개설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90년대, 2000년대는 국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국내의 도로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발전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국토 종합 간선망 계획이 필요하고, 국내 건설경기가 향후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설계회사별로 30~50%의 수주, 매출액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본회가 성장해 가야할 길은 먼저 도로 및 공항기술사의 일거리 창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로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져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축소로 과거 업무 영역 외에 유지관리, 도로 정비 기본계획, 준공도 작성 및 대형건물의 지상, 지하 도로설계의 도로기술사 참여 등 유자격자가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둘째, 해외사업, R&D 등을 통해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업무능력 향

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회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및 회원 친목을 위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단 법인화를 추진하여 연구용역 또는 자문기관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자립 및 건전 재원조달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다른 기술사회에 비하여 규모도 크고 비교적 단합이 잘되는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 입니다만 아직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이 191명이나 되고 회비 미납자가 많아 재정운용이 취약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본 회의 경제적 기반이 수립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는 회원들 간의 애경사, 토론의 장, 정보교류의 중요한 연결 통로이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본 회의 5개 분과 부회장 및 이사진들이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종 행사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무보수 봉사직인 간부들의 헌신적 노력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